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김귀태. 안셀모 916-847-820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사도행전 2:42-47	제2독서	베드로1서 1:3-9	복음	요한 20:19-31
--------	------	--------------	------	-------------	----	-------------

◎말씀 < 주님의 평화와 세상 논리 >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빈 무덤으로 찾아 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서 몸소 그들을 찾아가시어 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비로소 주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다른 이들과 함께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주님은 나만의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잘나고 더 열심히 기도한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나에게만 나타나시어 남보다 더 큰 평화와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못한 형제들이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과 함께 같은 공기를 마시며 같은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그곳에 있는 모든 이에게 당신 손의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나’만이 아닌 모든 이가 “주님을 뵈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百聞以不如一見)’이라했습니다. 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논리이며 대원칙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논리만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실 눈대신 마음으로 보며 귀로 들으면서도 눈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보고 이해하며 믿는 눈먼 소경앞에서는 이런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오관을 통해 보는 것은 잠시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눈은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마음은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고 합니다.

토마스처럼 두눈으로 보지않으면 결코 믿지 못하겠다며 세상 논리를 고집하는 사람은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야 서로 도와주며 빵을 나누고 순수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느끼는 잔잔한 기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갖가지 시련이 남아있고 아직 슬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초기 교회때에는 “그리스도를 본일이 없으면서도 그분을 믿고 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넘쳐있는” (1베드1,8) 그리스도인에게 무서운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금이 불로 단련을 받듯이 시련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순수해졌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나에게도 여전히 갖가지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이 남아있고, 주님을 믿고도 허전한 마음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유혹이 있습니다. 철들지 않은 가족이 있고, 믿지않는 사람보다 더 악을 일삼는 교우가 있어 나의 믿음마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련은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가 등을 돌리고 포기한 사람마저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에페6, 18)

일자	전례력	일자	전례력
4월21일(화)	부활 제2주간 화요일	4월24일(금)	부활 제2주간 금요일
4월22일(수)	부활 제2주간 수요일	4월25일(토)	성 마르코 복음사가 축일
4월23일(목)	부활 제2주간 목요일	4월26일(일)	부활 제3주일

●신앙생활(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프란치스코 교황, 부활 대축일 우르비 엿 오르비 메세지

프란치스코 교황의 올해 부활 대축일 우르비 엿 오르비(로마 도시와 전 세계에) 메세지는 코로나19 시대에 무관심, 자기중심, 분열과 건망증을 금하고 희망의 바이러스를 전파하도록 제시했다.

메세지 내용

오늘 우리의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메세지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염되는 '희망의 전염병'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이미 세계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 세계 밤에 인류 전체 가족을 심각하게 시험하는 압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새로운 불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마법의 공식이 아닌 악의 근원에 대한 사랑의 승리입니다.

이 승리는 '우회적'인 고통과 죽음이 아니라 이를 통과해 심연의 길을 열어 악을 선으로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전염병으로 고난의 부활절이며, 대유행이 경제적 고통에 이르기까지 슬픔과 고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전염병은 우리에게 인간 사이의 친밀함을 박탈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성찬과 화해로부터 흘러나오는 위로를 직접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박탈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입어 그분이 우리에게 손을 댔음을 확신합니다.

이 고통 속에 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국가사회에 필요한 필수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모든 사람,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 주는 법집행 기관과 군인들에게 감사와 애정을 표합니다. 이것은 또한 불확실한 미래, 위험에 처한 직업에 대한 걱정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은 공동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고 모든 사람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고 상황이 허락할 때 일상생활을 재개할 수 있도록 돕는 수단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무관심할 때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전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연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든 사람, 주변에 사는 사람들, 난민들과 노숙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국제 제재의 완화와 용서가 아니라면 가장 가난한 나라의 대차 대조표에 부담을 주는 부채의 탕감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세계 모두가 공유하기 때문에 자기중심의 시기가 아닙니다.

특히 유럽은 제 2차 세계대전 후 구체적인 연대정신으로 과거의 경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 경쟁자들은 힘을 되찾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는 자신을 단일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고 서로 지원해야 합니다. 특정 관심사를 이기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차후 세대의 평화로운 공존과 발전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계 각지에서 즉각적인 휴전을 호소합니다. 지금은 분열의 시기가 아닙니다. 무기 거래에 지출된 막대한 금액의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 돌려야 합니다. 시리아, 예멘, 이라크, 레바논의 지속적인 분쟁을 조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대화를 재개하고, 우크라이나 동부 상황이 해결되고, 다른 아프리카 국가의 수많은 무고한 사람에 대한 테러공격이 끝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건망증의 시간이 아닙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직면한 인 주의적 위기를 잊으면 안 됩니다. 난민과 이민자들을 위해, 특히 리비아와 그리스와 터키의 국경에서 견딜 수 없는 환경이 사라지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에서 해결책을 찾아서 정치, 사회, 경제 및 건강위기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국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의 어둠을 물리치십니다. 무관심, 자기중심, 분열, 건망증은 현재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이 말들은 두려움과 죽음이 우리를 압도할 때 우세한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이 모든 일이 이루어져 이 땅에 평화가 도래하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이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율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향	봉헌자	구분	지향	봉헌자
생	감사미사	김주동 스테파노가정	생	곽화근.요한의 건강회복	곽유경.데레사가족
생	자녀들의 영육간 건강	전기례.베레나	생	곽화근.요한의 영육간 건강	3구역원

●공동체 소식(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1구역(FE).2구역(F0).3구역(PC).4구역(NH).5구역(GF).6구역(RC).7구역(RT).8구역(NC).9구역(EG).10구역(DW)

<말씀안에 하나되는 사랑의 공동체>

찬미예수님!
본당 신자들에게!
코로나19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성당의 미사와 모임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열심히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미사중에
신자들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2020년 3월 17일
본당신부 김한모.바오로.

- 1.주일 대송은 독서와 복음 및 강론을 읽고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쳐주세요.
(평화방송 시청)
- 2.고해성사는 사전에 신부님께 확인후
개별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 3.성체조배와 십자가의 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4.구역장님께서서는 신자들과 자주 연락하시고
안부전화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가주 보건국에서 발표하는 예방지침 및
생활수칙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세정제사용.사회적 거리유지.주택대피령등)

● 교무금과 주일헌금 납부는
주님께 받은 은총에 대한 감사의 표시이며
교회 유지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교무금.주일헌금등은 사무실에 제출하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소: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95826
Check 발행시: ST. J.H.C.

●교무금
민명규(2-9월)정영규(4-5월)성영진(3-4월)
김계숙(3월)윤재경.우순이.안강순(4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헌금:김상돈(금일봉)
부활축하금:구준모(\$200)최병엽(\$500)
광고료(주보/달력):최병엽공인회계사(\$300)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태옥.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이규청.제노비아
엄모니카/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틸리아
박모란.글라라/고공자.벨라렛다/이상일.마리아
곽화근.요한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화답송



주님은 좋은 분이 찬송하여라 -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전례봉사	하느님자비주일(4월19일)	부활 제3주일(4월26일)	부활 제4주일(5월3일)	부활 제5주일(5월10일)
해설				
제1독서				
제2독서				
복사				
봉헌/기도/청소				
헌금위원				

(광고)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p> <p>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 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p> <p>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p> <p>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좋은사람들, 좋은아웃들이 만들어 가는 곳</p>  <p>510-688-0155 베로니카 510-688-0157 레이몬드</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p> <p>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 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 cell</p>	<p>에어컨 수리</p> <p>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울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p> <p>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p> <p>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p> <p>950 Iron Point Rd., #170 Folsom, CA 95630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p> <p>9723 Folsom Blvd. #B Sacramento, 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p>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최병엽공인회계사</p> <p>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 의사</p> <p>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p>동부뉴욕 4박5일 관광 엘로스톤 유럽 관광전문</p> <p>게스관광</p> <p>(480)244-0033 카카오톡:guesstour www.guesstour.com</p>	<p>Suzie Hair World</p> <p>2901 Mather Field Rd, #A, Rancho Cordova CA 95670 윤수산나 (916)368-8000</p>
<p>성당에 제출할 CHECK 발행하실 때</p> <p>Payee to: St.J.H.C</p>	<p>♡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p>		